

빛 되신 주님, 겸손으로의 초대 (눅 2:8-12)

I. [지난 메세지] 돌보시는 하나님, 적은 무리여 무서워말라 (눅 12:6-35)

- A.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바 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숫자와 관계없이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신다.

6 참새 다섯 마리가 ...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⁷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 ²⁹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 ³⁰
...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³¹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³²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눅 12:6-32)

II.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예언

- A. 성탄절은 아무런 소망에 없던 온 열방이 참 빛이 비추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은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을 휩쓸고 돌아 우리에게도 부여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다.

12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롬 15:12)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 1:9)

- B.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단을 향해 여자(하와)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을 하신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과연 여자의 후손인 어떤 사람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지 궁금하며 기다리게 된다.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흙정역, 씨)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 (창 3:15)

- C.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창 3:15절에서 약속된 인물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을 통해 나올 것을 말씀하시며, 또 그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³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2-3)

- D.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자신의 12 아들 중 유다를 축복하며 모든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오게 될 것을 예언한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될 인물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이 선포되었다.

8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 ¹⁰ 규(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평화를 주는 자, 혹은 통치자)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 49:8-10)

- E. 다윗 왕은 유다 지파인 이새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약속된 이 메시아(구원자, 해방자)께서 오실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어지는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을 다윗의 자손이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실 것이다. 이 메시아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서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예언되고 있다.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¹³ ...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 ¹⁶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삼하 7:12-16)

- F. 예수님을 향해 사용되는 선포인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선포하던 부분이었다.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더라 (마 21:9)

- G. 다윗은 자신의 자손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가 기록한 시편 110편에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 메시아가 신성을 가지고 있을 것을 선포한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께서 이제 신성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선포된다.

1 여호와께서 내 주(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 110:1)

- H. 다윗 이후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이 약속된 메시아가 신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며, 그것도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읽었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을 것인가?

⁶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⁷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 (사 9:6-7)

¹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리라 (사 7:14)

- I.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께서 겸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다 (롬 5:8).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사랑"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요 3:16; 요일 4:16).

⁵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5)

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셨느니라 (롬 5:8)

¹⁶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 J. 미가 선지자는 또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을 선포했다.

²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 5:2)

III.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 A. 이스라엘은 온 땅을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왕이자 구원자께서 오시길 고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이 수천년 간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 베들레헴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마 13:16-17)!

⁸ 그 지역(베들레헴)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⁹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¹⁰ ...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¹¹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¹²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눅 2:8-12)

- B.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찬양하는데, 이들이 하늘에서 계시던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 이제 땅에 겸손히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신 것을 보며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보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 겸손한 성품에 놀라서 기절할 정도였을 것이다!

¹³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¹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KJV 흠정역,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눅 2:13-14)

- C.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의 순종도 있으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음으로 그분과 같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계획도 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참으로 심을 얻는 여정이며 (마 11:29),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 (고후 8:9).

⁵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⁶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글KJV,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⁷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5-8)

²⁹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9)

- D. 우리는 삶 가운데 인간적으로 겸손의 모습을 연습해서라도 그분의 겸손을 닮아가려 노력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겸손을 만들어내지 않는, 바리새인의 누룩(눅 12:1)을 만들어 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며 (렘 17:9), 기독교는 외식의 종교가 아닌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정으로의 초대이다.

- E. 우리는 우리 손으로 낮아질 수 없으며, 낮아지는 것을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거부하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겸손을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분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한편으로 혹시 우리의 낮아진 시즌에 대해, 또는 겸손에 대해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기보다, 겸손을 배우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